



AI글래스 기술개발 중간보고회 단체사진.

/남동발전

# 남동발전, 현장 AX 혁신 본격화 발전설비 전용 AI 글래스 첫 공개

**‘AI글래스 기술개발 중간보고회’**  
공공기관 첫 발전 특화 기술 공개  
시각·언어모델 결합 플랫폼 개발  
오조작 차단·계기 판독 자동 구현  
전용 보안망 안시 안전운용 추진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발전 설비에 특화된 ‘AI 글래스’ 기술을 선보이며, 인공지능 전환(AI) 시대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시작했다.

남동발전은 지난 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경영진, AI 전문가, 기술개발 수행 기업인 (주)스위트케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스마트 발전기술 혁신을 위한 AI 글래스 기술개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 산업 분야 AI 고도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기획했다. 단순히 기존 스마트 글래스를 현장에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시각·언어모델(VLM)과 거대언어모델(LLM)을 결합한 ‘발전설비 전용

AI 운영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AI 글래스를 착용한 작업자는 설비 위치와 주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사내 시스템과 연동된 맞춤형 정보를 호출할 수 있다.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든든한 ‘지능형 개인비서’가 생기는 셈으로, 전 직원의 발전설비 운영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연된 주요 기술은 현장 작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능을 담고 있다. 우선 작업자가 바라보는 기기와 시스템에 등록된 작업 대상 기기를 실시간 대조하여 운전원의 오조작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현장 순찰 시 야날로그 계기판 수치를 AI가 자동으로 추출해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두 손이 자유로운 ‘핸즈프리(Hands-free)’ 환경을 구축, 안전사고와 인적실수를 예방은 물론 업무 몰입도까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국가 중요 보안시설인 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시스템은 전용 보안망(P-LTE) 내에서만 완벽하게 구동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고, 작업자가 보는 화면은 향후 ‘물리적 AI(Physical AI)’ 도입을 위한 학습데이터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이번 기술개발은 정부의 국가 AI 정책을 발전 현장에서 직접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흥발전본부 6호기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시험을 거쳐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설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글로벌 AX 혁신기술의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흥발전본부 6호기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 실증시험에 돌입해 과제를 완수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한전KDN·KAIST, AI에너지 혁신모델 개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확보 기대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손잡고 AI(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혁신모델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한전KDN과 KAIST는 지난 8일 카이스트 본원에서 ‘에너지 AI 혁신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X(인공지능 융합 기술) 기반의 에너지 실증모델 ‘지속가능한 전력공급(Sustainable Powering) AI’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글로벌 과급효과 평가 체계(Global Impact Framework)’ 연구개발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또 이를 위해 KAIST는 ▲글로벌 수출 및 적용 목적의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 ▲기존 해외 캠퍼스 협력 모델(KAIST 뉴욕 모델) 고도화 ▲캠퍼스 에너지 실증 AI 거버넌스 관련 추진 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전KDN은 ▲캠퍼스 내 구축된 전

력 관련 설비·장치 분석을 통한 지능형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 ▲KAIST의 기술 고도화 및 수출 모델 개발 지원 등을 수행한다.

특히 양 기관은 KAIST 캠퍼스 내에 ‘탈탄소 리빙랩(Living LAB)’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수용률 100%와 핵심 연구소 무중단 전력 공급체계를 실증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탄소중립 모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번 협력은 AI와 에너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캠퍼스 기반 실증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한전KDN의 현장 역량과 KAIST의 원천기술 결합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공공·학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신진력망 구축과 미래 에너지 신사업 개발로 정부의 AI 3대 강국 정책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aT, 화훼농가 맞춤형 합동컨설팅 추진

농진청과 경영난 해소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맞춤형 합동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훼업계가 이상기후 및 원가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데 따른 지원이다.

9일 공사에 따르면 이 컨설팅은 aT 화훼공판장 출하 농가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유통률 감소와 경영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올해 10월까지 24회 실시할 예정이다. 농가별로 재배·출하 관리, 신제품 도입 등 분야별 11명의 전문가를 1:1로 연결해 취약점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기술 지도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작년 첫 시행 이후 화훼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이끌어내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매에서 농가의 상품이 낙찰되지 않는 비율을 나타내는 유통률은 컨설팅에 참여하기 전 36.4%에서 컨설팅 후 8.7%로 대폭 감소했다. 또 참여 농가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생산성 향상이 실질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화훼농가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 중인 ‘역량 강화’ 현장. /aT

인 소득 증대로 이어졌음을 입증했다.

객관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컨설팅 대상 농가는 2배 늘어나고, 컨설팅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려 세밀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절화(6개 농가), 난(3개 농가), 관엽(3개 농가) 등 화훼 전 분야에 걸쳐 고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편성됐다. 지난 8일 우수농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농가별 순차적인 현장 지도가 진행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 ‘NEXT K-푸드’ 참여기업 145곳 선정

농식품부, 스타트업 등 맞춤형 지원  
권역별 마케팅·상품개발로 판로 확대  
대·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 시너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K-푸드 수출을 견인할 ‘글로벌 NEXT(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에 참여할 145개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각 기업의 수출 역량에 따라 ▲밸류업 ▲브랜드업 ▲스타트업 등 3가지 부문으로 세분화했다. B2B(기업 간 거래)·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들은 주도적으로 권역별 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설계하게 된다.

또 신규제품 개발·주요 유통업체 입점·대상 권역 수출실적 증가 등의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우산 밸류업 부문의 경우, 식품업계를 선도하는 대·중견기업이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투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품력이 탄탄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을 구성해, 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권역별 마케팅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대·중견·중소기업의 상생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산을 지원한다.

한 사례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어려운 중소 양조장과 해외 유통망을 보유한 수출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 술의 글로벌 진출 활로를 개척하고 공급 기반과 현지 판매망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이다. 또 미국 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식 메뉴와 국산 쌀을 활용해 전통 방식으로 빚은 우리술을 페어링하는 ‘K-레스토랑 위크’를 운영하는 등 우리 술의 북미 진출도 본격화한다.

브랜드업 부문은 9대 권역의 특성과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기반으로 전략품목군별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권역별 K-푸드 전략품목의 차별화된 콘셉트와 상품 특성을 부각하여 참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건강과 미용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일본·중국 권역에서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폴라젠, 붓기차 등 이너뷰티 제품과 단백질 음료를 중심으로 K-푸드의 건강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기능성 식품의 수출을 확대한다.

스타트업 부문에서는 국산 원료를 독특하게 재해석하고 목표 수출 국가의 소비 트렌드를 정조준하는 아이디어 상품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목표국가 맞춤형으로 기존 제품의 성분 또는 패키지를 개선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차기 K-푸드 유망 상품을 적극 발굴한다.

예로, 혈당을 낮추는 기능성 쌀 품종을 활용한 ‘곡물 시럽’은 유럽의 비건 및 웰빙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인공감미료를 배제하고 혈당 부담을 낮춘 기능성 저당 시럽은 유럽 ‘클린 라벨’(불필요한 화학첨가물·합성첨가물 최소화)해 식물성 기반 식품 선호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외국인력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접수

고용부,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신청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5774명(제조업 1만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며,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2회차부터는 외국인노동자(E-9)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과 외국인노동

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에 가점을 부여한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누리집(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5월 22일 ~ 29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6월 1일 ~ 8일까지 진행된다.

/세종=한용수 기자